



## 그린워싱 EU 규제 동향 및 사례

- 그린워싱의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제재 사례 소개 -

ESG 및 환경 경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린워싱에 대한 세계적인 경각심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에서는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환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넷제로 달성을 위한 인증제도의 신설과 같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규제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화 추이와 함께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그린워싱 관련 소송에 연루되어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그린워싱 글로벌 규제동향 및 규제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ESG 이슈: #ESG경영 #그린워싱 #규제동향

### 1. 배경

ESG 및 친환경 경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요소는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을 오인하도록 만드는 과장광고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등 그린워싱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린워싱 광고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로 인한 판결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화우 지난 뉴스레터]

- ☞ [환경부, 국내기업그린워싱예방을위한 「친환경경영활동표시·광고가이드라인」 발표\(2023.11.02\)](#)
- ☞ [EU와 미국, 그린워싱 규제 동향 \(2023.10.20\)](#)
- ☞ [그린워싱 규제 강화 개정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23.09.12\)](#)
-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 규제 동향 \(2023.06.23\)](#)
- ☞ [COP27, 그린워싱 관련 보고서 발표 \(2022.11.28\)](#)
- ☞ [그린워싱 규제화 동향 및 관련 기업 사례 - 그린워싱 규제에 따른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2.06.27\)](#)

### 2. 그린워싱 EU 규제동향 및 제재사례

[EU 그린워싱 관련 규제 동향]

(1) EU Green Claim Directive

EU Green Claim Directive는 2023년 3월 처음 제안된 이후, 2024년 3월 12일 유럽 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본 지침에 따르면 기업의 친환경 주장은 환경 성과에 기반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친환경 주장을 사용하기 전에 제3자 및 독립 검증을 받아야 하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합니다.

#### ☞ [EU 집행위, 그린 클레임 지침\(안\) 발표\(2023.04.11\)](#)

### (2) EU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 최종 승인<sup>1</sup>

EU 이사회는 지난 2월 20일 소비자들을 그린위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불공정 상사 관행 지침(UCPD,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과 소비자 권리 지침(CRD, Consumer Rights Directive)을 개정하고 이를 녹색 전환과 순환 경제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규정은 제품의 조기 노후화나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전반적인 소비활동에서의 정보제공을 돕고 문제 상황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소비자의 순환적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에 내구성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EU 의회의 의견을 거쳐 EU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3월 6일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지침은 20일 후에 발효되므로, 회원국은 2024년 3월 26일의 24개월 내에 새로운 규칙을 자국법에 적용해야 합니다.

### (3) EU의 이산화탄소 제거 인증제도<sup>2</sup>

유럽연합은 지난 2월 20일 친환경 농업 관행과 산업 공정을 포괄하는 세계 최초의 이산화탄소 제거 인증 레지스트리를 작성하기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Net-zero, 넷제로)라는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 제거 방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U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공기 중의 탄소를 직접 포집하여 제거하는 방법, 목재 기반 건설을 통하여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 산림 및 토양의 복원을 통해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 습지 관리 등 농업기술의 전환을 통한 토양 탄소배출 감소와 같은 4가지 고품질의 탄소 제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네 가지 유형의 탄소 제거에 대한 개요와 인증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해당 인증 기준은 기업의 탄소 제거 사업에 대한 그린위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증은 자발적이지만, EU의 기후 목표인 넷제로 달성과,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4년 이내에 인증 방법론을 개발하고 EU 전체를 아우르는 전자 등록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sup>1</sup> [Carriages preview | Legislative Train Schedule \(europaeu\)](#)

<sup>2</sup> [EU reaches deal on world's first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scheme – Euractiv](#)

## [글로벌 그린워싱 제재사례]

### (1) 식품업계 그린워싱 제재사례

덴마크 고등법원은 3월 1일에 EU 최대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D사가 "기후변화 조절(Klimakontroller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그린워싱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덴마크에서 그린워싱이 인정된 첫 판결 사례입니다. 덴마크 고등법원은 D사에 30만 크로네(약 5885만원)의 벌금과 함께 마케팅법 위반을 인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주 법무부 장관은 세계 최대 육류 가공업체인 J사에 대하여 회사가 허위의 지속가능성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사는 "육류 식품을 소비하고도 넷제로를 달성하는 기후솔루션이 가능하다", "2040년까지 모든 직간접배출을 없애겠다" 등의 선언을 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J사는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에 휘말리면서 뉴욕 증시 상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2) 글로벌 자동차회사 그린워싱 제재사례<sup>3</sup>

글로벌 자동차회사 B사와 M사가 영국의 광고 감시기관인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로부터 그린워싱 광고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M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 모터로 주행하지 않을 때에도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배출(zero emissions)'이라고 광고하였고,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 모터로 주행할 때에는 배기가스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광고하였지만, ASA는 이와 같은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ASA는 지난해 8월 M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M사는 동일한 광고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ASA는 자사 전기차 시리즈에 대하여 "무배출"로 광고한 B사에 대하여도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무배출"이라는 용어는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가 무탄소이거나 차량과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무배출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명시적으로 "배기가스 무배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무배출"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ASA의 입장입니다.

ASA의 문제 제기는 차량 회사들이 전기차와 관련된 용어를 영국 정부 및 EU의 정책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린워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 3. 국내기업의 유의점

글로벌 사업을 펼치는 국내 기업이 많습니다. 현재 그린워싱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실제 제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그린워싱과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SG 관련 소송은 단순한 일차적 손해가 아닌, 파급효과에 대한 것인만큼 그 규모가 크고 사회적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ESG 경영을 위한 주의를 기울이며 세계적인 규제 및 제재동향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sup>3</sup> [BMW, MG자동차 그린워싱 혐의로 전기차 광고 못매 < 교통수송 > 산업 < 기사본문 - 임팩트온\(Impact ON\)](#)

화우 ESG센터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ESG Tot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고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ESG 정책 및 규제환경에서 화우ESG센터는 고객의 신뢰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신승국** T. (+82) 2 6182 8502  
 선임외국변호사 E. [synn@yoonyang.com](mailto:synn@yoony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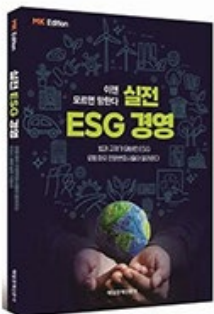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mailto: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mailto:klee@yoonyang.com)

**김정남** T. (+82) 2 6003 8559  
 ESG전략 그룹장 E. [jnkim@yoonyang.com](mailto:jnkim@yoonyang.com)

**장슬기** T. (+82) 2 6182 8365  
 변호사 E. [skjang@yoonyang.com](mailto:skjang@yoonyang.com)

**양희** T. (+82) 2 6003 7674  
 시니어매니저 E. [hyang@yoonyang.com](mailto:hyang@yoonyang.com)



화우 ESG센터는 기업이 ESG 규범화 이슈를 대응함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실전ESG경영'을 출간하였습니다.

주요 ESG 영역별 규범화 동향, 공급망 실사 규제 지침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산업별 주요 ESG 이슈 등을 담고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 정보 바로가기](#)